

제5강: 미켈란젤로와 16세기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세 거장

◆ 1교시: 미켈란젤로가 로마 건축에 끼친 영향

▲ Campidoglio에서 보이는 미켈란젤로 건축의 특징

미켈란젤로는 건축을 보면 매너리즘과 성기 르네상스의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고 했죠. 지역적으로 보면 피렌체에 남긴 것에서 매너리즘이 보이고 로마에 남긴 것에서 성기 르네상스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양면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다섯 명의 교황을 모셨는데 클레멘투스 7세와 관계가 가장 극적이라고 할까요. 좀 부정적으로요. 미켈란젤로가 클레멘투스를 배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가 사망하고 바오로 3세가 교황이 되면서 미켈란젤로의 숨씨를 그 누구보다 아꼈죠.

교황청 전체를 보면 미켈란젤로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의 실력만을 보고 그를 로마로 불러들여 오랜 기간 동안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대표작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Campidoglio입니다. 로마의 심장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로마의 창시자를 젓으로 키웠던 암늑대의 이름이 Campidoglio입니다.

로마의 창시자인, 우리로 치면 단군인 존재가 로물로스라는 쌍둥이 형제인데 그들이 늑대 젓을 먹고 컸어요. 그 늑대 이름입니다. 로마의 건국설화와 관련된 중요한 등장 동물이지요.

Campidoglio이란 늑대가 젓을 먹이던 장소인데요. 로마 건국의 출발점이 된 곳이지요. Campidoglio가 오랫동안 로마의 중심지였는데 중세가 되면서 폐허상태가 되었지요. 그래서 특히 로마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중세 도시가 성당을 중심으로 광장이 핵을 이루는데 로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Campidoglio를 재개발해서 르네상스 로마의 중심핵으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낡은 중세 건물 두 채가 있었죠.

그림 302를 보지요. 이 두 채의 건물이 원래 있던 낡은 것인데 이걸 renovation 하고 이 맞은 편에 쌍둥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광장도 정비를 하고 그림 302와 같이 밑에서 계단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도시 전체에서 보면 코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이

크로로 보면 언덕 위에 있는 지리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 광장에서 유입성, 초점, 통일성, 기념비성, 이 네 가지가 요구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절묘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유입성을 속도감의 완급조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계단을 보면 스케일로 보았을 때 계단 하나의 폭이 보통 계단의 폭보다 넓지요. 한 발자국에 못 미치죠.

한 발자국 가려면 굉장히 발을 넓게 벌려야 되거나 두 발자국, 세 발자국에 가야 합니다. 언덕에 올라오면 타원으로 비례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긴 비례입니다. 바닥도 타원을 써서 그 장축이 그대로 계단으로 올라오는 이동의 축상에 장축이 놓이면서 유입성이 빨라집니다.

타원을 도입한 르네상스 이후의 최초의 예입니다. 이것을 훔내 낸 포스트모더니즘에서도 일본 사람 중에 이소자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것을 가져다 쓰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다시 직사각형이 사다리꼴입니다. 그리고 입구보다 안쪽이 넓습니다. 급하게 들어왔다가 폭이 넓어지면서 완으로 바뀌는, 완급조절이 있었습니다. 초점은 타원 중간에 조각상을 세웠고 그 모습이 그림 304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오면 palazzo의 전면이 시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통일성은 고전주의를 구사합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빌딩으로 처리함으로써 광장에 들어오면 통일감이 느껴집니다.

정면에 있는 건물은 쌍둥이 빌딩과 구성을 달라도 중세 때의 타운 하우스 유형입니다. 그리 301에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골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 없지만 새 건물이 상당히 통일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기념비성은 장중한 고전 어휘입니다. 304를 보면 거대기둥을 사용했습니다. 두 개층 이상을 커버했죠. 전체적으로 음영이 상당히 강했구요. 이런 처리들을 보면 웅장하기는 한데 거대 기둥을 보면 작은 원형 기둥이 있죠.

상당히 여러 종류의 쌍개념들이 적절하게 혼합되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은 피렌체에 지었던 건물만큼 확연한 매너리즘적인 문법 뒤집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시대의 고민은 절묘한 쌍개념으로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 보면 굉장히 묘합니다. 갈 때마다 사람을 흥분시켜서 돌아다니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사람을 릴렉스 하게 합니다.

피렌체 건물에서 보았던 것처럼 상당히 은유적입니다. 쌍개념의 적절한 은유를 통해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기 르네상스의 정통적 고전주의이지만 16세기의 매너리즘을 유발했던 어려운 시대상황이 적절히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는 Antonio da Sangallo il oiovane가 하던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안토니아의 안이 자잘하게 쪼개져 있었던 반면 미켈란젤로는 이것이 교황청의 권위에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폐기처분합니다. 이 교황청 건물 같은 경우 중요한 건축가들이 다 안을 남겼습니다. 라파엘도 실제 진척된 것은 없었지만 십여 년 정도 주 건축가가 되면서 안을 남겼지요.

Antonio da Sangallo il oiovane도 남겼고 페루치도 그랬지요. 페루치는 라파엘을 도우면서 자신의 안도 내고 했죠. 이렇듯 로마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안을 남겼지만 그 완성은 미켈란젤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안토니오의 안을 폐기하고 브라만테의 안을 가져와서 활용합니다. 브라만테의 안은 상당 부분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바뀌게 되죠. 브라만테의 안 자체가 이 건물을 설명할 때 나왔던 3차원 고풍성이지요.

미켈란젤로 때만 와도 이것이 너무 자잘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서 이런 큰 기조는 지키면서 내용에서 이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합니다. 브라만테의 안이 다섯 겹의 동심원 구조이고 기둥이 많고 벽체는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이 두서없이 혼재되어 있었죠.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것을 보면 공간이 세 겹으로 줄었고 기둥을 없앴습니다. 벽기둥을 좀 사용하고 벽도 두꺼운 벽 하나로 통일하죠. 중심부를 보면 벽을 넘어서 하나의 메스감이 강하게 드러나게 바꿉니다.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실추된 가톨릭의 권위를 육중한 기념비성을 통해서 복원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외벽은 정면 쪽은 나중에 네이브(nave)를 더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안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후면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것이 나타납니다. 또 돔을 받치는 드럼도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겁니다. 쌍기둥이죠. 평면에 보면 그리크로스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름모꼴의 정사각형이 전체 윤곽을 차지하죠.

벽을 쌍기둥으로 분절하며 평면에서 외벽을 보면 정확하게 90도로 꺾이는 부분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평면에서 외곽 자체가 물결 치듯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표면을 다시 쌍기둥으로 처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쌍기둥의 물결이 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쌍기둥은 거대기둥이지요. 그림 309를 보면 거대 기둥이 수십 개가 물결치듯이 넘어가는 장중한 느낌이 나죠. 평면에 나타난 육중한 고풍성, 덩어리감을 외벽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드럼도 같은 것이죠. 외벽을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은 개념으로요. 그래서 그 외벽의 디테

일이 그림 310입니다. 돔은 굳건히 서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308입니다. 이상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 베네치아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

그 다음은 16세기 베네치아 르네상스로 넘어갑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상당히 지역 전통이 강한 지역입니다. 동방과의 연관성이 강하고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돌 다루는 기술이 있었죠.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 조각술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생명력을 드러냈다면 베네치아의 돌 다루는 전통은 석공들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베네치아를 위시한 주변의 세 도시가 르네상스 건축의 중심지인데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16세기에 오게 되면 베네토 주가 그이전의 종교개혁이나 로마 대약탈 등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로마 교황청과 대립하는 등 상당히 애매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중적 관계가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베니스 지방만의 자립성이 표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반대로 로마와의 연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이런 복잡한 정치적 움직임들이 그대로 건축가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반면에 내부를 보면 아메리카를 쳐들어가게 되지요. 처음에 칠레나 잉카 등과 같은 남아메리카를 쳐들어가지요. 금과 은이 유입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대서양에 있는 항구도시들이 융성하게 되지만 이것이 베네치아에도 일정 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베네치아도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융성하게 되고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2교시: 베니스 건축의 세 거장들

▲ 산미켈리의 건축 양식

16세기 베니스 건축은 산미켈리(Sanmichele), 산소비노(Sansovino), 팔라디오(Palladio) 이 세 명이 이끌었습니다.

산미켈리는 석공 출신으로 주로 베니스의 지역 전통을 나타낸 반면 산소비노는 베네치아 출신이 아닙니다. 베니스에 이주해와 로마 전통 고전주의를 구사한 사람입니다.

팔라디오는 종합화를 통해 베니스 건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동시에 15, 16세기 르네상스 건축을 총 완성시키는 대표적인 건축가입니다. 건축만으로 보자면 미켈란젤로를 능가하는 최고의 대 건축가였습니다.

베니스는 이런 독특한 지역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과 성기 르네상스의 이분법 구분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줄리아 로마노식의 매너리즘은 베니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크게는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베니스 지역의 특징인 장식이 나타납니다. 돌을 다루는 전통과 장식이 혼합되면서 일정 부분 매너리즘의 기교적인 부분을 섞어냅니다. 이것이 16세기 베니스 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로마에 대한 베니스의 입장이란 전통적으로 로마를 능가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종속될 수도 없는 이중적 관계였습니다. 건축에서도 로마적 고전주의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 베니스의 지역적 전통을 어떻게 혼합해 내느냐의 문제를 고민했죠.

이런 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좀 다르지만요. 산미켈리를 먼저 보면 이 사람은 석공 출신으로서 돌가공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석공 출신치고는 건축가 반열에 오르는 드문 사람이죠.

바로크 시대까지는 직업에 위계가 있었지요. 아무래도 건축가가 석공보다는 지위가 높은 직업이었지요. 건축가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요. 건축교육, 인문학교육, 예술교육 등을 말합니다.

석공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 하고 현장에서 정을 들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산미켈리는 그 중에서 드물게 건축가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성채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군사 건축가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많은 건축가들에게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특히 산미켈리는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16세기 성채 건축을 얘기하는 데에 있어 산미켈리가 가장 위에 위치합니다.

특히 성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verona를 자신의 근거지로 삼아서 근대적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성채 건축을 활용합니다. 전형적인 현장형 건축가이지요.

그래서 도시 내에서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도시의 주요 지점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 격자블럭에 위한 효율적인 도시 운영, 도심과 외곽 사이의 유기적 관계 등의 근대적 실용 개념을 도시 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런 도중에 결절점에 성채를 세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르타팔리노 성문입니다. 그림 330이죠. 이 건물은 베르나를 가로지르는 중심도로인데요. 이 중심도로는 에르베 광장에서 시작되는데 이 끝에 위치하며 도시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차로 한번 돌면 한 삼 십 분 걸릴까요?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죠. 서울의 사대문처럼 거기에도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들을 전부 산미켈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공공기념비가 되는 거죠. 단순히 실용건축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없고 일정 부분 고전주의 같은 고급건축을 섞어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 석공으로 시작해 건축가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저런 역할을 만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지리적 위치와 도시의 관문이라는 기능으로부터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킨 겁니다.

첫째는 기념비성, 고전주의를 통해서 단순한 성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전적 색채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뒤면을 다르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죠.

도심을 향하는 쪽은 대부분 대중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친숙한 이미지이고 바깥을 바라보는 부분은 도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일종의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외부에서 도시로 들어오는 첫인상이기 때문이지요.

330의 도심면, 아치를 사용했습니다. 325가 바깥면입니다. 신전 파사드라든가 오더라든가 장식도 많이 붙지요. 바깥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상당한 형식을 갖춥니다.

그 다음은 성문의 방어 이미지입니다. 벽채 처리한 건 거칠게 처리되죠. 돌도 rustication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방어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이 palazzo를 많이 설계했습니다. 고급건축으로요. palazzo는 베로나에 지어지는 것과 베니스에 지어지는 것들이 있죠. 베로나의 경우는 주로 이층에 국한되면서 브라만테의 라파엘 하우스 모티프를 활용합니다.

1층은 거친 돌을 이용해, 표면을 거칠게 표현한 벽채 구조를 사용했고 2층은 오더를 이용합니다. 베니스에 지어진 것은 주로 3층 이상의 개방성 아치를 이용한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겠죠.

특히 돌 다루는 기술은 베로나에 지어진 palazzo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벽면이 많으니까 돌의 표면질감을 활용할 바탕면적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반면 이것은 아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벽면이 없습니다.

돌 다루는 기술보다는 장식 위주이죠. 예가 330부터 341까지입니다. 산미켈리의 palazzo 건물이죠. 334와 338이 베로나에 지어진 palazzo 카노사입니다. 1층과 2층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1층은 벽채 구성이고 2층은 오더열 구성이죠. 벽기둥이지만요. 라파엘 하우스 모티프죠. 343과 341이 베네치아에 지어진 것입니다. 341이 전형적인 산미켈리의 베네치아형 palazzo 이죠.

층에 상관없이 창이 다 넓습니다. palazzo 카노사는 1층은 상당히 폐쇄적이고요. 15세기의 구성에다다 브라만테의 로마 palazzo 유형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 하우스 모티프를 섞어 쓴 것이죠.

1층은 방어적이지요. 도심에 있는 것이니까요. 반면 341은 벽이 거의 없죠. 대신 장식은 많이 들어가지요. 그림 333은 둘의 혼합입니다. 1층은 베로나형, 2층은 베네치아 형입니다.

▲ 산소비노의 건축 양식

그 다음은 산소비노입니다. 산소비노는 베니스를 본거지로 삼은 건축가였습니다. 산미켈리는 베로나 중심이었지요. 물론 베네치아에도 palazzo를 남겼지만 산미켈리의 기본적인 근거지는 베로나였습니다.

이탈리아도 현대 건축으로 오면 지역적 특성이 없어지고 이탈리아 전체적인 색채가 강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 전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베네치아 공항 같은 경우 크지는 않지만 지역적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도시국가 전통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대표적인 건축가들이 지역의 색을 살려서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죠. 부산은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산소비노는 산미켈리보다는 인문학 공부를 한 고급 건축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향도 미켈란젤로와 같고 연배도 비슷합니다.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둘이 같이 잘 아는 친구이기도 했고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비노는 고전주의를 로마에 가서 배웠고 그곳에 체류하면서 작품도 조금씩 하긴 했습니다. 이렇다 할 작품은 못 남겼죠. 그리고 로마의 높은 벽도 넘지 못하고 베네치아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을 많이 남겨서 오늘날 베네치아의 근대적 골격을 잡아주는 중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그림 346과 249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의 중요한 골격을 완성시키는 거죠. 349를 보면 위쪽의 것이 산마르코 성당이고 이것은 총독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서관이고 그 바로 앞에 화폐 제조국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캄파닐레.

이 세 개를 산소비노가 설계를 한 겁니다. 산마르코 광장의 운하 쪽 골격을 상당 부분 완성합니다.

346이 도서관이 지어지지 전의 모습입니다. 뾰족 솟은 캄파닐레와 운하 사이에 낮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헐고 345를 보면 오른쪽에 긴 건물이 도서관이고 그 옆의 건물을 renovation 한 겁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산마르코 광장이 근대적인 골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베니스 외곽에 신도시가 세워져서 관광객이 요즘은 거기에 묵지만 옛날에는 배로 들어가야 했죠. 산마르코 광장이 서울역 같은 거죠.

그렇게 총독궁을 보면서 들어왔는데 16세기에 들어와서 베니스가 많이 커지면서 이걸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광장을 재개발하려는 계획의 첫 번째가 제카와 도서관을 짓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총독궁 옆에 나란히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바다를 막게 되니까 옆으로 비껴 세우면서 광장을 열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산소비노가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산미켈리의 베로나형 palazzo와 비슷하죠. 라파엘 하우스 모티프를 쓴 거죠. 1층은 벽채 구성의 아치열, 2층은 오더열. 차이가 워낙 1층 구조가 개구부가 훨씬 넓다는 겁니다.

베네치아 지방의 개방성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런 처리를 통해서 산소비노 역시 베네치아의 돌 다루는 기술, 로마의 전통 고전주의를 적절히 잘 혼합해 내게 됩니다.

그 다음 것이 산마르코 도서관이죠. 344, 345 그리고 351이지요. 1층과 2층이 아치와 오더라고 하는 로마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건축형식을 표준형에 가깝게 구사를 했고 거기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베네치아의 근대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로마와의 일정한 조율을 했죠. 산소비노 자체도 로마에서 정착을 못 하고 베네치아 입장에서 산마르코 광장을 중심으로 베네치아의 중심에다 르네상스 초기 근대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줄 건축가를 찾고 있던 것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산미켈리는 이런 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석공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팔라디오는 어려서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외부에서 찾은 것이죠. 잘 나가는 건축가들은 대부분

로마에 머물렀고 로마에서 쓴맛을 봤던 산소비노가 성공적으로 작품을 잘 남기면서 그에게는 성공의 장소가 되었고 베니스도 중요한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도시와 건축가가 잘 맞은 경우에 해당하죠. 우리나라는 서울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일단은 서울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죠.

유럽 같은 도시국가 전통이 강한 곳에선 경제규모나 인구규모로 보면 작은 도시임에도 건축 등의 예술로서 중요한 도시가 상당히 많지요. 바로 예술가들이 지방에 작품을 많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과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사람이 시골에 가서 집 지으려면 시골 이장님 집에 숙박 사들고 찾아가서 동네 분위기를 맞춰야 하죠. 전원주택 분양허가를 따로 받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의 분위기와 정치, 행정, 텃새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요.

산소비노는 외부인임에도 베네치아에 들어가서 잘 성공적으로 정착한 예라고 할 수 있지요.

▲ 팔라디오의 건축 양식

그 다음에 팔라디오입니다. 팔라디오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총 정리해서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팔라디오는 조각을 먼저 배우고 석공을 배웁니다. 이 사람도 돌을 먼저 접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돌을 끼고 살다가 vicenza로 이주하게 됩니다.

팔라디오도 베니스에 주요작품을 많이 남기지만 주요 근거지는 여기였습니다. 세 명의 건축가가 각각 근거지를 하나씩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건축을 했고 셋 다 정치적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산소비노는 총독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학교에서 배울 때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은 미술과 다르죠. 미술은 물감 값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건축은 건물을 지어주는 물주(物主)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미국은 practice과목이라고 해서 건축주와 협상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제안서를 얼마나 잘 쓰는지 볼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정치 권력자들과 친해야 하니까 각 시대마다 물주가 있죠. 요즘은 아무래도 경제적 관념이 있어야죠. 요즘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것에 휩쓸릴 필요는 없지만서도 작품을 하려면 그쪽으로 너무 생각이 없어도 힘들기는 합니다.

대개 중세까지는 건축가는 없었고 장인들이 직업에서의 자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가와 관계가 일방적이었죠. 그런데 초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대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가 쌍방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18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오히려 건축가들의 지위가 점점 낮아집니다. 초기 근대의 르네상스에서만은 둘의 관계가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작품에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팔라디오는 트리시노(Trissino)와 바바로(Barbaro)에게 바통 터치 하듯이 후원을 받습니다. 트리시노가 사망하면서 바바로가 하게 됩니다. 둘 다 vicenza의 귀족으로서 팔라디오를 전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선사업 하듯이 후원한 것은 아니고 서로 이용한 것이죠. 서로 효용성이 있었던 겁니다. 트리시노는 귀족으로서 정치적 야심이 컸던 인물인데 특히 로마 교황청과 깊은 정치적 연대를 통해서 좁게는 vicenza와 넓게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 합니다.

물론 크게 성공은 못 하고 죽었지만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접근하려 했냐면 그게 바로 건축입니다. 유럽은 예부터 귀족들이 예술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귀족들의 여러 의무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귀족이란 작위 자체가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죠. 귀족이 병영을 기피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영국 왕자가 이라크로 간다고 하잖아요. 예술은 일종 부분 통치수단의 하나였습니다.

서양 예술은 그 안에 상당히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고전주의를 보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은 당대 최고의 가정교사를 통해 탄탄한 예술교육을 받습니다.

귀족들이 수준이 높고 유식했지요.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그렇지요. 학문을 공부한 선비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해 정치도 하고 그랬죠. 트리시노도 이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건축을 통해서 이것을 재현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수행할 중요한 건축가를 찾다가 팔라디오가 눈에 든 거지요. 공부도 시켜 주고 라틴어도 가르쳐 줍니다. 덕분에 팔라디오는 나중에 『건축 사서』라고 하는 중요한 건축 이론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다 트리시노의 작품에 가깝죠. 그리고 팔라디오를 산미켈리, 세르디오 등에게 소개해 줍니다. 도면 작성과 같은 고전 건축의 기초도 배우게 합니다. 절대적인 후원과 작품 수주를 해주는 로비스트 역할도 해주죠.

그것을 바바로가 그대로 이어 받아 비슷하게 잘 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많이 남기지만 트리시노가 꿈꿨던 정치적 내용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 하지만 vicenza의 근대적 골격을 잡는 거죠.

산미켈리는 장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로나의 근대적 골격을 대체로 성과 성문 중심으로 잡혔던 것에 비해 vicenza는 주옥같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가면 도시는 좀 작지만 사이사이에 아주 수준 높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끝난 예입니다. 팔라디아 건축은 종합화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석공 출신이었지만 조각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움으로써 현장 장인형, 인문학형, 조각가형을 혼합해 낸 것이죠.

건축가상으로 보아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세 가지 건축가상이 혼합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보아도 트리시노를 통해서 로마 고전주의를, 산미켈리나 산소비노 등을 통해서 베니스 지방의 전통을 배우죠.

본인도 vicenza에서 베니스 지방의 전통을 배우죠. 암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화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앞에 사용한 작품의 선례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 모방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창작품으로 승화시켜 냅니다.

그리고 15, 16세기 2세기의 르네상스 건축을 총완성한 건축가였습니다. 서양 건축가들에게는 미켈란젤로나 고르비제를 능가하는 훌륭한 건축가로 추앙이 되고 다작이었습니다. 아마 르네상스 건축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다작(多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선례를 잘 담고 있고 보편성들을 잘 정리해 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팔라디아 건축에서 써먹을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팔라디아 건축 연구자 중에서 훌륭한 건축가가 된 현대 건축가들도 많습니다.

쏟아부은 거에 비해서 정리가 잘 된 보편성을 획득한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 서양식의 건축 개념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서양 건축가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대가가 베네치아 지방에서 16세기 후반부에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